

북유럽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(ODA) 정책과 제도 연구

-주동주 연구위원(국제산업협력실)

1. 출장자: 국제산업협력실 주동주 연구위원
2. 출장기간: 2008. 10. 23 - 10. 30 (6박 8일)
3. 출장지: 덴마크, 핀란드
4. 출장목적: 모범적 국제원조 제공국들인 북유럽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(ODA) 정책과 제도 연구 - 경희대 국제대학원 주관 세미나에 초청자측 부담으로 공동 출장
5. 출장 업무 수행 내용
 - 경희대 국제대학원의 국제개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대학 교수진 및 석박사 과정 학생들과 함께 덴마크 및 핀란드의 대외원조 관련 정부 주무기관과 민간단체, 컨설팅 기업 등을 방문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가짐.

-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원조제공국들로 인정받는 북유럽 선진국들의 원조 정책과 제도, 시행현황 등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개도국 원조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음.
- 현지에서 발행된 주요 발간물과 자료들을 입수함

6. 주요 방문 기관과 면담자 및 면담 내용

▣ NIRAS Scanagri: Senior Consultant Gladys Savolainen 외 실무자 2인

- NIRAS는 30년전에 핀란드에서 농업회사로 출발했으나, 스칸디나비아반도를 중심으로 세계각지에 자회사를 가진 다국적 농업 전문회사로 성장했음.
- 특히 아프리카에서 NIRAS는 많은 개발사업들을 수행해 가장 성공적인 민간 컨설팅 개발전문기업으로 평가되고 있음. 현재도 40여개 국가에서 120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. 지역별 비중은 아프리카 40%, 아시아와 중동 35%, 동유럽 25% 정도임.
- NIRAS의 주고객은 핀란드 외무부 (Ministry of Foreign Affairs), DANIDA (덴마크 대외원조전담기구), DFID (영국 대외개발협력부), ADB, USAID 등임.
- NIRAS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지만, 소말리아, 이라크 등 개발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문제 국가들에서 많은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수행해왔음.

▣ KEPA: Miya (행정담당), MIna (대외협력담당)

- KEPA는 핀란드의 대외원조에 관계하는 민간단체들의 협력기관으로서 1985년에 설립되었으며, 270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. 현재 니카라구아, 탄자니아, 모잠비크, 잠비아, 메콩강 지역 등 5개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.
- 재원은 주로 핀란드의 외무부가 제공하지만,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시민단체들의 이해를 대변함.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고 원조 예산 확보를 위한 로비를 하며, 요원 훈련 등 각종 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음.
- 개발도상국들의 빈곤 퇴치를 위해 시민단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으며, 각국의 정책 목표와 공조하는 협력 활동이 필요함.

▣ 핀란드 Ministry of Foreign Affairs: Antero Klemola 개발협력 담당 과장

- 핀란드는 1960년대에 한국과 비슷하게 내전 등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, 그런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활용하는 원조정책을 추진해왔음.
- 원조 수행에 있어서는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능력 배양이 중요하며, 정부가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없으므로 NGO들의 참여가 중요함.
- 핀란드의 원조정책은 현실적으로 무역 등 경제적 이해, 그리고 정치적 연대 등을 고려한 여러가지 요인의 배합으로 결정됨.

■ COWI : Thomas Nocolaj Hansen 외 2인

- 코위는 덴마크에 본부를 둔 국제개발 컨설팅 회사로서 1930년대에 설립되어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수자원, 토목, 철도, 도로 건설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음. 3E (Engineering, Environment, Economics) 분야를 주업무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음.
-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정책 분야에도 다양한 자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. 예를 들어 탄자니아의 관광 정책 입안 같은 분야에 코위의 엔지니어링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하였음.

■ Ministry of Foreign Affairs, Denmark

- 덴마크는 최소한 GNI의 0.8%를 ODA에 배분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. 2007년 경우 64.4%가 양자간 원조, 35.6%는 다자간 원조였음.
- 양자간 원조는 16개 국가에 집중되었으며, 특히 전체 예산의 2/3 정도가 아프리카에 제공되었음.
- 덴마크는 원조에 관한 국제규범을 최대한 준수하고 있으며 Paris 선언, Accra Agenda for Action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.
- 덴마크 원조가 최근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여성 개발, 질병 퇴치, 기후 변화 대응 등임. 특히 여성 개발을 위해 MDG3를 적극 제기하여 국제사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.

- 또한 아프가니스탄 같이 분쟁을 겪고 정부 능력이 취약한 국가들에 원조를 늘리고 있음.
- MDG3 Global Call to Action은 여성개발을 위해 덴마크 정부가 적극 주창하고 있는 국제 프로그램임. 이를 위해 Torch 배포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하고 있음.

7. 출장 성과

- 한국이 2010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(DAC) 가입을 목표로 정하고 국제원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출장은 모범적인 선진국들의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는데 유익한 계기가 되었음.
- 초청자인 경희대측과 이번 출장에서 거둔 성과를 평가하고 선진국의 원조 정책을 점검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였는 바, 향후 이러한 성과들이 축적되어 한국의 국제개발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함. ☺